

미국-스페인전쟁과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에 나타난 팽창주의, 반(反)제국주의

석 화 정*

1. 머리말
2. 전함 ‘메인 호’ 폭발사건과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
3. 개전 이후 미디어의 팽창주의 선동과 미국의 대외 정책
4. 전후(戰後) 미디어와 반(反)제국주의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1898년의 미국의 대 스페인전쟁(이하 미서전쟁)의 승리는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열게 했다. 카리브해의 푸에르토 리코, 태평양의 괌, 그리고 동아시아의 관문인 필리핀 등 중요한 새 영토가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역사교수

미국령이 되었다. 설탕과 담배 원료의 공급지였던 쿠바는 미국의 ‘바로 문 앞의’ 보호령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미디어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쿠바, 푸에르토 리코 등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정치풍자화(political cartoons)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미디어에서 반복 재생산된 풍자 이미지와 애국주의적 구호 등, 선정적인 보도의 여파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계에 대한 자국의 인식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쿠바, 푸에르토 리코, 하와이, 괌, 필리핀 등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의식을 이해해야, 오늘날 미국민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다.¹⁾

푸에르토 리코와 괌은 현재도 미국령이며, 필리핀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쿠바의 관타나모항에 지금도 미국의 해군기지가 있다. 미서전쟁을 계기로 미국 역사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미국의 개입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미서전쟁은 오늘날 세계 ‘경찰’로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 전 세계 약 70개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와 이를 위한 해외 영토 점거 문제, 범미주의(Pan-Americanism)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패권 문제 등의 광범한 논의가 제기된 첫 계기였다.

신속하고도 별다른 희생 없이 이루어져 당시 존 헤이(John Hay) 국무장관이 “영광스런 작은 전쟁(A Splendid Little War)”이라고 불렀지만, 미국의 쿠바-스페인 전쟁 개입과 그 결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미서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전쟁 개입을 대단히 고귀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신화가 미국역사에

1) Paul T. McCartney, *Power and Progress: American National Identity, the War of 1898, and the Rise of American Imperialism*(Baton Rouge, 2006), p.2; Louis A. Jr. Perez, *Cuba in the American Imagination; Metaphor and the Imperial Ethos*(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8), p.10.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미디어와 정부의 대외정책 결정은 어떤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일까.

호전적인 특정 미디어가 당시 맥킨리행정부로 하여금 스페인과의 전단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일반론²⁾은 주로 두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미서전쟁기에 처음 등장한 ‘황색 언론’이란 용어는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의 〈뉴욕 저널(New York Journal)〉과 풀리처(Joseph Pulitzer)의 〈뉴욕 월드(The New York World)〉지가 나란히 황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개전의 압력을 가했던 풍자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다.³⁾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다. 토마스 G. 패터슨(Thomas G. Paterson)은 ‘애국주의적인 황색언론과 여론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전쟁을 전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문헌적 연구는 없다’⁴⁾며 미디어와 정부의 개전 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론에 선을 그었다. 1898년도에 미국 전역에서 발행된 미디어만도 2,200개의 일간지, 13,000개의 주간지, 600개의 주 2회 간행신문에 달한다.⁵⁾ 당시에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미서전쟁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검토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인 셈이다.

미서전쟁 100년을 경과하며 최근에는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를

2) Bonnie M. Miller, *From Liberation to Conquest: The Visual and Popular Cultures of the Spanish-American War of 1898*(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1), pp.10-11. 주 13의 문헌 참조.

3) Stephen Hess, Sandy Northrop, *American Political Cartoons- the Evolution of a National Identity, 1754-2010*(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USA) and London(UK), 2011), p.72).

4) Thomas G. Paterson, U.S. Intervention in Cuba, 1898: Interpreting the Spanish-American-Cuban-Filipino War, *OAH Magazine of History*(Spring, 1998), pp.7~8.

5) Richard F. Hamilton, *President McKinley, War and Empire*, vol.I(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ing, 2006), pp.241~42; Miller, p.11.

통해 미서전쟁과 미디어의 역할을 구명하는 연구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미 제국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풍자 이미지를 소개한 루이 마르티네즈-페르난데즈(Luis Martinez-Fernandez)의 교안(Lesson Plan)⁶⁾, 쿠바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풍자화를 다룬 루이 A. 페레즈(Louis A. Jr. Perez)의 연구,⁷⁾ 1898년 미서전쟁의 풍자 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보니 M. 밀러(Bonnie M. Miller)의 연구⁸⁾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서전쟁기의 황색언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추정을 재확인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표적인 두 개의 황색언론 외에도 몇몇 특정 미디어가 정부의 정책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 디지털 형태로 등재된 1898년도 신문 약 1,900종을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황색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온 미디어의 헤드라인(머릿글), 중간 머릿글과 기사, 그리고 선별한 풍자 이미지 약 1,000편을 중심으로 미디어가 미서전쟁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문헌 중심의 미서전쟁 연구의 공백을 메워보고자 한다.

14편의 풍자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인용 각주에서 헤드라인과 풍자 이미지에 달린 캡션의 내용이 들어간 신문과 잡지의 발행일을 제시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경향성을 분류해보았다. 제 2장에서는 미디어가 미서전쟁의 전개과정과 전후(戰後) 여론 형성에

6) Luis Martinez-Fernandez, The Birth of the American Empire as Seen Through Political Cartoons(1896-1905), *OAH Magazine of History*(Spring 1998), pp.48~57

7) Perez, 앞의 책.

8) Miller, 앞의 책.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전후(戰後)에 형성된 반제국주의 논의와 미디어 이미지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1898년 11월 말에 결성된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의 의미와 영향력이 미디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미디어의 정치 풍자화의 보도 경향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전후(戰後)에 등장한 전쟁 책임론과 반제국주의 논의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 캡션, 헤드라인을 포함한 텍스트와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의 상관관계, 미서전쟁의 성격, 그리고 전후 전쟁 책임론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 전함 ‘메인 호’ 폭발사건과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

1898년의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의 풍자 이미지에 투영된 미서전쟁은 1500년 이래 이루어진 쿠바에서의 스페인제국의 통치를 종식시킨 전쟁이자,⁹⁾ 대서양과 멕시코만, 카리브해의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곳곳에 성조기를 꽂게 만든 제국주의 팽창전쟁이었으며,¹⁰⁾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하나의 조국, 하나의 깃발’ 아래 싸운 최초의 애국주의 전쟁이었다.¹¹⁾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1면에 풍자 이미지와 풍자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 그리고 초대형 머릿글을 지면 가득히 동원하여 정부에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9) The Saint Paul Globe., 1898.12.4/14; The Herald(LA), 1898.5.4.

10) The Herald(LA), 1898.1.23.

11) The St. Paul Globe, 1898.5.29; The Hawaiian Gazette, 1898.6.24; The Kansas City Journal, 1898.8.29; Semi-Weekly Interior Journal, 1898.12.30; Louis A. Jr. Perez, *Cuba in the American Imagination: Metaphor and the Imperial Ethos*(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8), p.11.

드러났다.¹²⁾

식민지 팽창에 대한 압력은 사실상 1890년대 이래 ‘쿠바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며, 스페인으로부터 매입하지 못한다면, 무력으로라도 차지해야 한다’는 마한(Alfred Thayer Mahan), 롯지(Henry Cabot Lodge), 비버리지(Albert Beveridge) 상원의원 등 미 팽창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¹³⁾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사들이려는 미국 정부와 전미은행 신디케이트(American Bank Syndicate)의 구체적인 매입 협상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미디어 이미지에 따르면, 적어도 1898년 1월 말까지 ‘맥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과 월 스트리트(Wall Street) 금융가는 스페인에 대해 그리 적대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이 아니었다.¹⁴⁾

그러나 2월 들어 미국이 쿠바의 대 스페인 독립전쟁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미디어 이미지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맥킨리 대통령을 ‘부패하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저급한 정치가’로 묘사한 주미 스페인대사 드 롬(Dupuy de Lome)의 사신(私信)이 <뉴욕 저널>지에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폭로된 것이 그 계기였다. 미국 언론과 대중들은 크게 분개하였고, 미디어는 노골적으로 스페인 대사를 추방(SCAT!) 하라는 풍자 이미지를 게재했다.¹⁵⁾ 이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에서는 쿠바-스페인문제의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가령, ‘만일 쿠바에서의 반란으로 미국의 이해가 손상된다

12) Marietta Daily Leader(New York Herald), 1898.5.15; The Herald(LA), 1898.8.10/12.9; Dakota Farmers' Leader, 1898.8.26; Puck, 1898.5.25; Evening Star.(Washington), 1898.7.9/12.26.

13) Miguel A.Fernandez, *The Spanish Navy and the Spanish-American War, Theodore Roosevelt, The U.S.Navy, and the Spanish-American War*, Edited by Edward J.Marolda(Palgrave, 2001), p.20.

14) The Houston Daily Post., 1898.1.27.

15) The Times, 1898.2.11; Evening Star., 1898.2.12; The Houston Daily Post., 1898.2.15.

면.....누군가가 성조기를 내리려고 시도한다면!’이라는 캡션과 함께 미국의 대표 이미지인 영클 샘(Uncle Sam)이 쿠바 쪽을 망원경으로 유심히 ‘예의주시하는(WATCHING!)’모습,¹⁶⁾ 또는 스페인의 잔혹한 악정을 알리고,¹⁷⁾ 가녀린 쿠바 소녀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미지 등¹⁸⁾이 그것이다.

쿠바 내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6천 톤 급의 순양함 ‘메인 호’가 1898년 2월 15일 오후 9시 40분경에 쿠바의 아바나항에서 폭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스페인대사를 사임시키라는 여론의 압력이 가중된 지 6일 만에 ‘메인 호’ 폭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스페인정부를 맹비난했고, 스페인의 악정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각 신문의 헤드라인과 이미지에 곧바로 투영되었다.

‘메인 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2월 16일, 워싱턴 <이브닝 타임즈 The Evening Times>지는 ‘메인 호’의 우호적인 방문(Friendly Call)의 결과라는 캡션과, 채 발사되지 않은 여러 대의 기뢰(torpedo) 옆에 폭발된 ‘메인 호’의 이미지를 게재했다.¹⁹⁾ 누가 보아도 스페인의 기뢰로 말미암아 전함이 폭발되었음을 알리는 이미지였다. 2월 17일자 <뉴욕 저널>과 <뉴욕 월드>지는 초강경의 헤드라인과 이미지를 지면 전체에 가득 메웠다. <뉴욕 저널>지는 전함 ‘메인 호’의 폭발을 적국 스페인의 소행이라 단정 짓고 폭발범색출에 5만 불의 현상금을 거는 등 적개심을 고조시켰다. ‘전함 메인 호를 파괴한 것은 적의 소행이었다’, ‘루즈벨트 해군차관은 전함의 폭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확신한다’는 대형 헤드라인, ‘해군 장교들은 메인 호가 스페인의 기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생각한다’

16) The Houston Daily Post., 1898.1.30.

17) New York Journal, 1898.2.4.

18) The Times, 1898.2.14.

19) The Evening Times, 1898.2.16.

는 이미지와 캡션 등이 그것이다. 〈뉴욕 월드〉지도 ‘메인호의 폭발은 기뢰나 폭탄에 의해 일어났다’는 헤드라인과 불타는 전함의 이미지를 1면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²⁰⁾

이처럼 황색언론의 대표 주자인 〈뉴욕 저널〉지와 〈뉴욕 월드〉지가 대형사진, 대형 이미지, 대형 헤드라인을 8면 이상의 지면에 할애하며 호전적 애국주의를 부추겼다. 〈샌프란시스코 콜(The San Francisco Call)〉지도 ‘개전 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전운이 미국에 감돌고 있다’는 헤드라인과 이미지를 게재했다.²¹⁾ 미서 공동조사위원회가 아바나항에 도착(2.21)한 뒤, 증인과 생존자들의 증언, 선박을 탐사했던 잠수부들의 증언이 보도되기 시작했지만, 미국 언론은 ‘메인 호 폭발이 단순한 사고였다’는 스페인 조사위원회측의 결론을 신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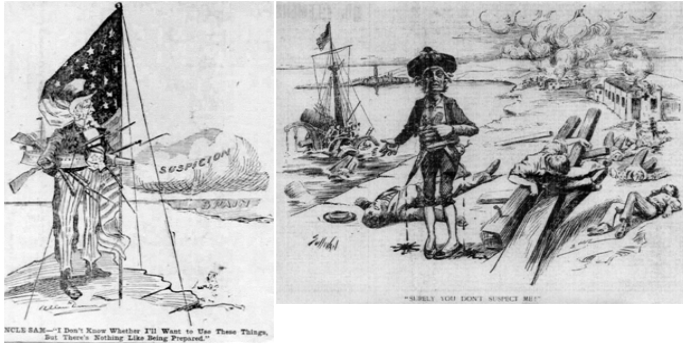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헤럴드 The Salt Lake Herald〉지 2월 23일자는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헤드라인과, 스페인정부에 잔뜩 의혹(suspicion)의 눈길을 보내는 이미지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성조기 옆에서 양 팔 가득 무기를 든 잉클 샘이 ‘이 무기들을 내가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지’라고 혼잣말을 하는 캡션을 달았다<그림 1>.²²⁾ 같은 날, 워싱턴 ‘타임즈(The Times)’지도, ‘설마 나를 의심하지는 않겠지요(Surely you don't suspect me)?’라며 억울해 하는 스페인인의 양 허리춤의 칼에서 피가 뚝뚝 흘러 떨어지는 이미지를 게재했다<그림 2>.²³⁾ ‘메인 호’의 폭발이 스페인 정부의 소행이 틀림없다는

20) 스페인이 미 전함 메인 호를 폭파시켰다는 황색언론의 경쟁적인 선동과 허위 보도는 사실 근거가 없는 과장된 왜곡 보도였다. 1976년 미 해군제독의 보고서,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2년 히스토리 채널(History Channel) 등의 최종 보고서는 ‘메인 호’가 전함 내부의 보일러 기관에서 폭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1) The San Francisco Call, 1898.2.20/22/23.

22) The Salt Lake Herald, 1898.2.23.

여론몰이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림 1〉 The Salt Lake Herald, 1898.2.23. 〈그림 2〉 The Times, 1898.2.23.

특히 〈샌프란시스코 콜〉지와 워싱턴 〈타임즈〉지는 가장 지속적으로 정부의 쿠바문제에의 개입을 주도했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America is Ready),’ ‘음모에는 무력으로 대처해야’ ‘스페인의 음모가 메인 호를 폭발시켰다,’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선포할 수도...’ ‘스페인이 전쟁을 선포할 지도 모른다’는 등의 머릿기사와 이미지 등이 그것이다.²⁴⁾

이에 비해, 다소 신중한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미디어들도 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 데일리 포스트 The Houston Daily Post〉지는 단순 폭발 사고였다는 스페인의 최종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여론의 압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미지²⁵⁾에 이어, 3월 8일자에서는 전보다 더 호전적인 이미지를 게재했다. ‘국방비로 5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23) The Times, 1898.2.23.

24) The San Francisco Call, 1898.2.25/27/28/3.1/6; The Times, 1898.2.27;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1898.3.6.

25) The Houston Daily Post, 1898.2.25.

전쟁이 임박했으며, 스페인은 그 폭발음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설명이 달린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캔자스 시티 저널 The Kansas City Journal〉지는 처음에는 개입에 반대했다가 점점 호전적인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 경향성이 바뀐 대표적 미디어였다. 신중에서 개입으로 어떻게 그 논조가 바뀌어 갔는지 따라가보자. 동 신문은 2월 26일에 ‘주전론자들(Jingoes)의 선동이 매우 소란스럽다’며 호전적 언론을 경계하는 〈뉴욕 프레스 New York Press〉지의 이미지를 전재했다.²⁶⁾ 2월 27일자 일요판(The Kansas City Sunday Journal)에서는 잉클 샘이 ‘냉철함을 유지하고(Keep your head cool)’, ‘상식(Common Sense)’에 입각해서 ‘판단(Judgement)’ 해야 한다는 〈뉴욕 헤럴드〉의 다소 신중한 이미지를 전재했다. 호전적 애국주의의 열기 속에서 ‘상식’이라는 미국 독립혁명의 이상주의 모토가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2월 28일자에서는 ‘스페인이 메인 호를 폭파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내 등 뒤에서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라고 혼잣말을 하는 잉클 샘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3월 1일자에서는 개입을 주저하는 맥킨리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3월 16일자에서는 맹견 두 마리(미 육군과 해군을 상징하는)를 앞세운 잉클 샘의 자신만만한 모습의 〈뉴욕 헤럴드〉지의 이미지를 전재했다. 〈캔자스 시티 저널〉지의 신중한 논조가 불과 3주도 안 되는 사이에 전쟁 개입을 지지하는 논조로 바뀐 것이다.

개전에 이르는 약 두 달여 동안 미국 언론의 개입과 선동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3월에 들어서며 미디어는 266명의 미 해군이 사망한 ‘메인 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콜〉지는 ‘수백만 달러가 국방비로 들 것’ ‘대통령과

26) The Kansas City Journal(New York Press에서 전재), 1898.2.26.

의회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을 게재했다(3.8). 심지어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지는 ‘24시간 이내로 전쟁이 선포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3.6).

의회가 만장일치로 개전에 찬성한 3월 9일자 미디어에서는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며, 모두 애국자(All Are Americans All Are Patriots)’라는 지극히 선동적인 대형 헤드라인과, ‘조국의 사명이 미국의 자유민들을 불러 모을 때 정파란 있을 수 없다’²⁷⁾〈그림 3〉는 중간 머릿글을 게재했다. 다른 미디어에서도 일제히 ‘전쟁 개시를 지지하는 만장일치 투표’(The Salt Lake Herald), ‘준비되어 있다’, ‘단지 망설이고 있을 뿐, 준비되어 있다(The Herald(LA))’는 등 즉각적으로 전쟁을 촉구하는 내용의 헤드라인과 정치 풍자화가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워싱턴 〈타임즈〉지 3월 11일자의 ‘전쟁이 임박했다(The coming WAR!)’는 이미지에서는, 맥킨리 대통령이 ‘자유 쿠바(Free Cuba)’, 쿠바 구입에 드는 비용(400억 달러), 그리고 미 의회가 승인한 비용인 ‘5천만 달러(Fifty-Million-Dollar Bill)’짜리의 칼을 들고 있다. 대통령이 스페인 국왕 알폰소(Alfonso)와 싸우려 하지만, 월가의 다양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동 신문 3월 13일자는, 쿠바에 자유를 가져다주는데 필요한 자금이 월 가로부터는 물론 스페인-쿠바 공채 등을 통해 맥킨리 대통령에게 지원될 것이며, 어린 소녀 쿠바를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개전을 압박하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콜〉지도 스페인이 ‘메인 호’ 폭발을 자국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의 암운이 점점 더 드리워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27) The San Francisco Call, 1898.3.9.



〈그림 3〉 The San Francisco Call, 1898.3.9.

〈그림 4〉 The Herald(LA), 1898.3.22.

〈그림 5〉 The Salt Lake Herald, 1898.4.6.

3월 18일에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메인 호’ 폭발을 외부에 의한 폭발로 규정하긴 했지만, 스페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미디어에서는 이미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동적인 이미지가 증가했다. 영클 샘이 장총을 손질하고, 대통령에게 총을 쥐어주는 이미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²⁸⁾ ‘맥킨리 대통령은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의회는 맥킨리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묶여 있는 쿠바 소녀를 스페인으로부터 구해내라는 이미지²⁹⁾ 등에서 맥킨리 대통령의 선택을 재촉했다.

다소 중도적으로 반전을 내세웠던 〈휴스턴 데일리 포스트〉지도 3월 19일자에서는 당파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 사이에서 고민하는

28) The Houston Daily Post, 1898.3. 15; The Times, 1898.3.29; The Evening Times, 1898.4.1.

29) The Salt Lake Herald, 1898.4.6; The San Francisco Call, 1898.3.25/30.

맥킨리 대통령에게 월가의 이해를 참고하되, 초당적 이해관계의 길을 선택하라고 압력을 넣게 된다. 동 신문은 이를 뒤인 3월 21일자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함께 ‘메인 호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애국주의적 이미지를 게재했다. 그리고 3월 24일자에서는 쓰러진 쿠바 여성을 구원하는 미국 독수리의 이미지와 더불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명확해졌다’는 타 언론의 호전적 이미지를 전재하였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Philadelphia Inquirer〉지 3월 26일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쿠바 여성을 스페인의 악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잉클 샘의 개입 명분으로 충분하다(Justification Enough!)³⁰⁾는 이미지를 게재하였다. 동 신문 4월 4일자에 나타난 잉클 샘은, 비록 총칼을 발밑에 내려놓고 있지만, ‘해방시켜 달라(Let Me Loose)’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쿠바 여성에게 곧장 달려갈 듯한 기세이다. 미국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한 이미지이지만, 이 장면에서 잉클 샘의 양팔은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끌고 있다.³¹⁾ 당시 언론에서는 이처럼 전쟁에 대비하는 미국의 모습과, 개입을 주저하는 ‘난처한 대통령(unhappy president)’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이미지와 헤드라인들이 난무했다. 가령, 〈헤럴드(LA)〉지의 1면 이미지는 양분된 여론을 잘 반영하였다. ‘언제 개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When is the Properest Time to Fight)’를 달력과 지도를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지도자들과, 반대로 전제는 절대 안 된다(NEVER!)고 반대하는 정치가들을 대비시킨 것이다.〈그림 4〉.³²⁾

특히 〈샌프란시스코 콜〉지는 1898년 미서전쟁기 내내 가장 호전적인 머릿기사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미디어로 주목된다.

30) Philadelphia Inquirer, 1898.3.20.

31) Philadelphia Inquirer, 1898.4.4.

32) The Herald(LA), 1898.3.22.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촉구하는 대 의회)메시지가 전쟁을 촉진시킬 것이다’³³⁾는 헤드라인, ‘맥킨리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캡션, 묶여 있는 쿠바 소녀를 자유롭게 하고, 스페인의 악정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맥킨리대통령을 의원들이 억지로 등 떠밀고 있는 이미지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림 5>. ³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의 3월 27일자 이미지에서는 쿠바 여성이 스페인의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잉클 샘이 억압의 사슬의 고리를 끊어주려 하고 있다. 잉클 샘은 한 손에 ‘인간애(Humanity)’라고 쓰인 도끼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긴 칼을 쥐고 있다. 미국적 ‘상식’에 이어 ‘인간애’라는 이상주의로 쿠바 개입을 정당화할 명분이 축적된 것이다. <뉴욕 저널> 4월 3일자는 앙상하게 마른 두 아이를 안고 걸리고 있는 깡마른 쿠바 여성의 절박한 모습의 이미지에 ‘이제 쿠바 구원이 가시화되고 있는가(Is Help In Sight At Last?)’라는 캡션을 달았다. 쿠바의 인권, 자유를 위해 미국이 더 이상 이상주의적인 개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강조한 이미지는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³⁵⁾ 미디어 이미지에서 전쟁 개입을 적극 지지하는 호전적 애국주의는 쿠바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상주의로 포장되었다. 스페인이 쿠바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상주의 명분하의 개입논의는 한층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³⁶⁾ 당시

33) The San Francisco Call, 1898.4.5.

34) The Salt Lake Herald, 1898.4.6.

35) 풍자 이미지에서 제국주의 식민 국가는 남성 또는 백인 여성으로, 쿠바를 비롯한 식민 대상국을 여성, 어린이, 약동, 유색인 등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정책의 전개와 ‘힘의 정치’의 세력관계에 따라 대상국의 정형(prototype)과 풍자 이미지가 계속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풍자 이미지를 통한 1898년의 재구성-인종주의 너머 ‘힘의 정치’로』, 『서양사론』 제126호(2015.9) 참조.

36) The Herald(LA), 1898.4.4/8; The Houston Daily Post., 1898.4.9.

미국 정부가 스페인의 반응을 곧 최후통첩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론몰이는 맥킨리 대통령에게 쿠바의 독립을 스페인에 요구하고, 나아가 1895년 이래의 쿠바인들의 제2차 독립전쟁(1차는 1868-78년)을 종식시키라는 적극적인 압력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공약(1896)으로 쿠바의 독립을 내세웠던 맥킨리는 처음에는 쿠바 병합을 ‘범죄나 다름없는 침략’³⁷⁾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차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맥킨리는 결국 호전적 애국주의 언론의 선동과 압력에 굴복했다. 맥킨리는 4월 11일에 쿠바-스페인전쟁에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President’s Message)’를 의회에 전달하였다. 의회에 요청한 맥킨리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적 내용은 사실상의 개전촉구안이었다.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쿠바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대우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 스페인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미 해군조사위원단의 보고에 입각하여, 메인 호는 외부의 폭발, 즉 기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평온을 찾는 유일한 희망은 쿠바에 강제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인류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쿠바의 (대 스페인)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쿠바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정부가 설립되도록, 필요하다면 미 육해군을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이제 관건은 의회에 있다. 이것은 엄숙한 책무이다...’

37) Ivonne Marie Garcia, *Anticipating 1898: Writings of U.S. Empire on Puerto Rico, Cuba, the Philippines, and Hawaii*, Ohio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2008, p.326.

대 스페인 개전이 미국의 ‘엄숙한 책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이 선전포고안이 의회에 전달되자, <뉴욕 저널>지 4월 14일 월요일자 호외는 이미지 없이 초강경의 호전적인 대형 헤드라인만으로 1면 전체를 장식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We Have Got To Fight!)’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Must Declare for War)’는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미디어들은 여전히 주전문자와 신중론자의 두 갈래로 갈려 개입 압력과 신중한 보도 사이를 오갔다. 가령, <헤럴드(LA)>지는 여전히 개입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넣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동 신문의 이미지에서 맥킨리 대통령은 칼(전쟁), 월 스트리트, 성조기, 메인호 사건 조사보고서 등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며 접시(외교)를 돌리는 곡예사이다(still juggling).³⁸⁾ 반면,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캔자스 시티 저널>지는 ‘주전문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투표하자고 울부짖어놓고, 정작 ‘메시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투표도 않고 그저 전쟁, 전쟁(War, War)만 부르짖고 있다’고 냉소적으로 표현했다.³⁹⁾

그러나 대통령의 대 의회 메시지 이후 미디어에서는 주전문자들의 선동이 훨씬 더 표면화되었다. ‘호전적인 애국주의자(Jingo)’의 분노측정기(게이지)가 네 번째 ‘분개(indignation)’의 단계를 넘어 마지막 ‘전쟁(war)’의 단계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선동적인 이미지가 등장했다<그림 6>. 맥킨리 대통령이 징고이즘(Jingoism, 전쟁이 국가 정책의 도구이며, 위대한 국가 미국의 전쟁은 영광스런 것이 될 것이라는 선동적 애국주의)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영국의 <펀치 Punch>지의 풍자 이미지는 당시 미국 내 호전적인 분위기

38) The Herald(LA), 1898.4.13.

39) The Kansas City Journal, 1898.4.16.

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었다<그림 7>. 〈뉴욕 저널〉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스페인의 악정을 중단시키려 한다면 유럽도 개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내용의 이미지와 그림 설명을 첨부하며 전쟁 개입을 촉구했다.⁴⁰⁾ 대통령의 대 스페인 선전포고안이 상원에서 42 대 35로 결의되고, 하원은 311 대 6으로 통과되자(4.19), 곧바로 미디어에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캡션과 이미지,⁴¹⁾ ‘스페인은 쿠바에서 떠나거나 싸우거나 해야’⁴²⁾ 한다는 대형 헤드라인이 등장했다.

미 의회는 스페인군 철수와 쿠바의 독립을 보장하라는 최후통첩을 스페인에 보낸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해도 쿠바를 병합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4.20).⁴³⁾ 이 사실 역시 미디어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자, 이제 어린 소년 쿠바, 내가(영클 샘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Now, Little Man, I’ll see What I can Do for you),’⁴⁴⁾ 스페인은 쿠바에서 ‘손을 떼라!(Hands Off!),’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은 이제 기정사실’⁴⁵⁾ ‘최후통첩장은 사실상 선전포고’, ‘스페인이 최후통첩장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⁴⁶⁾ 는 등의 이미지와 헤드라인이 그것이다. 맥킨리 대통령은 4월 25일에 스페인에 선전포고했다. ‘메인 호’가 폭발된 지 100일 만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쿠바를 자유롭게(Cuba Libre)’, ‘메인 호를 기억하라(Remember the Maine)’, ‘어찌 잊으랴(Will I ever forget?)’ ‘잊지 말아야(Lest We Forget!)’ 등의 구호는 펄력이는

40) New York Journal, 1898.4.17; The San Francisco Call, 1898.4.17.

41) The San Francisco Call, 1898.4.19.

42) The Lebi Banner(University of Utah), 1898.4.19.

43) Rock Island Argus, 1898.4.20; The San Francisco Call, 1898.4.20.

44) New York Journal, 1898.4.20.

45) Chicago Tribune, 1898.4.19; Marietta Daily Leader, 1898.4.21; The St. Paul Globe, 1898.4.22; Anaconda Standard, 1898.4.23.

46) The San Francisco Call, 1898.4.22; The Houston Daily Post., 1898.4.22.

성조기 이미지와 함께 향후 언론에서 이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무수히 반복 재생산되었다(그림 8).⁴⁷⁾ 특히 ‘메인 호를 기억하라’는 매년 ‘메인 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미디어 1면 전면에서 반복된 슬로건이자,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메인 호를 기억하라’는 상점과 거리의 애국주의 구호였을 뿐만 아니라, 껌 포장지, 빵 봉지, 성냥박스, 스푼, 단추 등 각종 상품 포장에까지 등장한 슬로건이었다.⁴⁸⁾



〈그림 6〉 The Herald(LA)(New York World에서 전재), 1898.4.16.

〈그림 7〉 Punch, 1898.4.16.

〈그림 8〉 The Herald(LA) (New York World에서 전재), 1898.4.30.

47) Minneapolis Journal, 1898.2.22; The Times, 1898.3.11; The Houston Daily Post.,1898.3.21; New York World, 1898.3.12/23; The St Paul Globe, 1898.4.3; The Herald(LA), 1898.4.19/30(New York World에서 전재)/5.11/15/28; Barton County Democrat., 1898.4.28; The Anaconda Standard, 1898.5.2; The Enterprise., 1898.5.4; The Scranton Tribune, 1898.5.11; The Caldwell Tribune., 1898.5.21; The Salt Lake Herald, 1898.5.30; The Daily Kentuckian, 1898.7.29.

48) Miller,p.4; David Traxel, 1898 the Birth of the American Century(Vintage Books, 1999), p.121.

‘전함 메인호가스페인에 의해 폭침되고, 선원들은 죽었다..... 깨어나라!
이건 꿈이 아니야.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나?.....’⁴⁹⁾

당시에 등장한 메리 엘리자베스 램의 이 노래 ‘미국이여 깨어나라(Awake United States!)’의 5절에 달하는 가사와 후렴구는 호전적이고도 선동적인 메시지 그 자체였다. 이 애국주의적인 선동가의 가사와 후렴구에는 ‘메인 호’가 스페인에 의해 폭침되었으므로 전쟁에 나가 스페인을 응징하자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메인 호’ 사건 이후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로 말미암아 스페인과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자는 여론의 통로는 처음부터 봉쇄되었던 듯하다. 전쟁 이외에 미국이 선택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3. 개전 이후 미디어의 팽창주의 선동과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한 지 6일 후인 5월 1일에 첫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조지 듀이(George Dewey)미 해군제독이 첫 공격을 개시한 곳은 쿠바가 아닌, 정반대 쪽 필리핀 마닐라만의 스페인 함대였다. 쿠바를 자유롭게 한다는 대 스페인전쟁의 첫 전투가 필리핀에서 전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 의회 메시지에서도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에서 스페인의 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였다. 미 해군이 쿠바가 아닌, 필리핀 마닐라만을 공격한 데는 무역로를 확장하고, 저탄기지, 전신선, 해군기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였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맥킨리 대통령은

49) Marie Elizabeth Lamb, *Awake United States!*(New Orleans, LA: 1898), library.duke.edu/digitalcollections/hasm_a89.

미디어의 애국주의를 활용하여 해외 팽창을 실현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의 선동에 그저 따라간 것인가. 미국학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논쟁은,⁵⁰⁾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대한 문제이지만, 필리핀 공격으로 개시한 미서전쟁의 첫 단추는 분명 이 전쟁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 해군은 5월 1일의 마닐라만 공격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스페인군만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⁵¹⁾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미디어도 필리핀 마닐라만에서의 미 해군의 승리에 대해 그것이 왜 쿠바에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날 헤럴드지는 ‘나가!(SCAT)’라는 짧고 강렬한 캡션과 함께 잉클 샘이 스페인을 ‘쿠바에서’ 축출하는 이미지를 게재했다<그림 9>.⁵²⁾ ‘나가(SCAT!)’라는 짧고도 단호한 캡션은 스페인을 추방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할 캡션이었다. 미 해군도, 미 언론도 처음부터 스페인과의 전쟁이 쿠바 이상으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전 이후 미국 미디어의 선동은 이제 해외 식민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팽창주의 여론으로 이어졌다. 미 해군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나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 영토에 대한 주장은 이후 여러 언론에서 타사의 이미지를 중복 전재하며 반복 재생산되었다.⁵³⁾ 아시아에서의

50) Miller, pp.13-14. 주 24 참조.

51)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1898.5.1; The Houston Daily Post., 1898.5.2; The San Francisco Call, 1898.5.3/8; Marietta Daily Leader., 1898.5.5; The Herald(LA), 1898.5.5/16; Iron County Register, 1898.5.12.

52) The Herald(LA), 189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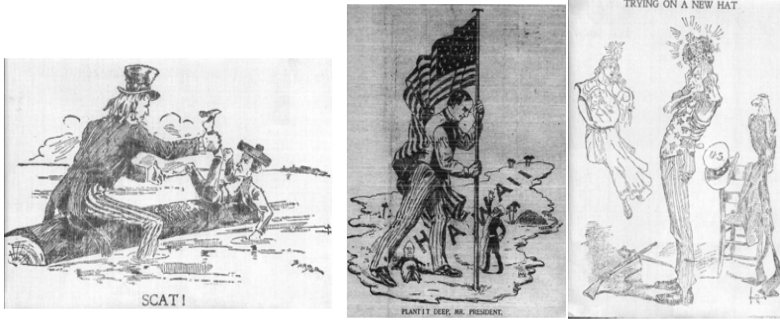
53) The Herald(LA), 1898.5.19; New York Herald, Marietta Daily Leader, 1 98.5.19; The Bourbon News, 1898.5.20; New York World, 1898.5.20; The Salt Lake Herald, 1898.5.20.

‘영광의 5월 1일’의 승리를 필두로 자유(Liberty)를 향한 미국적 이념(The American Idea)이 쿠바와 푸에르토 리코에서 스페인제국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이미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⁵⁴⁾ 마닐라 만에서의 승리는 미국에게는 미국적 ‘상식’과 인류 보편적 ‘인간애’의 이상주의가 승리한, 영광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쿠바-스페인전쟁 개입을 목표로했던 미서전쟁은 순식간에 동아시아에서 중미에 이르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군은 ‘달빛 아래 피크닉’ ‘소풍같은 전쟁’으로 묘사될 만큼, 필리핀에서, 쿠바에서, 그리고 푸에르토 리코와 괌에서 신속하게 승리했다. 미 육군은 푸에르토 리코를 침입하고(5.12), 무혈전쟁으로 괌을 점령했다. 미군의 쿠바 점령은 ‘메인 호’가 폭파되었던 남쪽 아바나항의 반대편 북쪽 항구인 산티아고(Santiago)를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군차관을 사임한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령의 의용 특공대가 지상전에서 쿠바의 산티아고만을 점령하는 일방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5.29~7.17). 뉴욕 〈헤럴드〉와 LA 〈헤럴드〉지 등의 미디어가 앞으로 영클 샘이 스페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인지(I wonder if he wants some more?) 스스로 반문하게 된 것이 이 즈음이다.⁵⁵⁾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월 중순 이후 미국 언론에 나타난 스페인제국의 이미지는 따라서 그 명예가 크게 실추하다 못해 전쟁과 국내 혁명에 직면한 이중삼중고의 참담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54) The Herald(LA), 1898.5.6/10; Figaro(Wien), 1898.5.7.

55) New York Herald, The Herald(LA), 1898.5.14.



〈그림 9〉 The Herald(LA), 1898.5.1.

〈그림 10〉 The Evening Times, 1898.6.3.

〈그림 11〉 The Herald(LA)(Chicago Chronicle에서 전재), 1898.6.5.

6월에 들어서며 미디어에서는 스페인제국이나 전쟁과는 상관없이 없는 하와이를 미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쩍 증가했다.⁵⁶⁾ 이미 1820년대부터 하와이에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자격으로 이주했던 미국인들은 1893년에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바 있다. ‘하와이에 성조기를 다 깊이 확실하게 세우시오, 대통령!〈그림 10〉’⁵⁷⁾ ‘미스 하와이도 미스 쿠바와 함께 교실에서 책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캡션과 이미지 등은 이미 하와이 병합을 당연시한 보도였다.⁵⁸⁾ 하와이 병합이 확실시되면서, 영클 샘이 하와이를 포함, 지구 곳곳에 성조기를 꽂는 이미지가 등장했다.⁵⁹⁾

그러므로 6월 초 미디어에서는 영클 샘의 야심(Ambition)은 이제 무력(총칼)을 내려놓고, 제국(Empire)의 새 왕관을 쓰는 일만 남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11〉.⁶⁰⁾ 라드론 군도(Ladron Islands-

56) The Evening Star.(Washington), 1898.6.1/7/25; The Hawaiian Star, 1898.6.3/8.

57) The Evening Times(Washington), 1898.6.3.

58) The Hawaiian Star, 1898.6.23.

59) The Herald(LA), 1898.6.11; The Hawaiian Gazette, 1898.6.24.

현 마리아나제도)가 미 독립기념일에 미국 영토가 되었다는 이미지가⁶¹⁾ 이어, 그 다음은 포트 리코(발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푸에르토 리코를 바꾸어 부른)가 곧 함락될 것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했다.⁶²⁾ 독립 이래 미국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급성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독수리 날개에 수많은 주와 해외 식민지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미지,⁶³⁾ 쿠바의 산티아고를 완전히 장악한 미 육군이 칭얼대는 쿠바 어린이에게 ‘조금만 참으라(be patient)’며 ‘자유 의 죽(Liberty Porridge)’를 떠 먹여주는 이미지도 등장했다.⁶⁴⁾ 거대한 ‘용광로(melting pot)’는 자유의 나라 미합중국을 상징하는 듯하다. 쿠바가 거대한 용광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밀러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파언론이건 공화당 지지파 언론이건 미국내 언론들은 모두 미서전쟁에 찬성했다. 밀러는 전쟁 개입에 대한 지지 여부,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 당파적 색채가 강한 43개 신문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체로 공화당 지지파 언론은 호전적이면서 팽창주의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언론도 대체로 호전적이었지만, 반제국주의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처음엔 팽창주의였다가 반제국주의로 돌아선 미디어 네 곳(Charlestown News & Courier, Houston Post, Richmond Daily Times, Savannah Press)은 모두 민주당 지지파 언론이었다. 그런가 하면, 1898년 당시 미국내 언론 가운데 반전적이면서 친제국주의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미서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도 반대하는 신문은 세계의 신문(Baltimore Sun, Life, New York Evening Post)뿐이

60) Chicago Chronicle, The Herald(LA), 1898.6.5.

61) The Salt Lake Herald, 1898.7.4.

62) The Wichita Daily Eagle., 1898.7.15.

63) The Evening Star.(Washington), 1898.7.9.

64) The Evening Star.(Washington), 1898.7.23.

었다.⁶⁵⁾ 밀러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대체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파적 성향이 강한 미디어(New York Journal, New York World, New York Sun, San Francisco Examiner, New York Herald, Chicago Tribune, Chicago Record)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⁶⁶⁾

이에 비해 본 논문은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배제한 채 황색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미디어의 헤드라인과 풍자 이미지를 대상으로 전쟁지지 여부와 반제국주의 성향 여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 신문이 쿠바-스페인문제에 개입할 것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개전을 압박했던 미디어의 헤드라인과 이미지의 빈도수, 정부의 정책에 앞서 정책 결정에 압력을 넣는 선동성 여부로 분석해 보았을 때, 양대 황색 언론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팽창주의적인 미디어들은 워싱턴 〈타임즈〉와 캘리포니아의 〈헤럴드(LA)〉, 〈샌프란시스코 콜〉지 등 세 언론이었다. 〈캔자스 시티 저널〉지와 〈뉴욕 월드〉지는 처음엔 개입 반대의 신중한 입장에서 점차 호전적인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게재하다가 결국 완전히 호전적인 여론으로 돌아섰다. 〈헤럴드(LA)〉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은 〈뉴욕 월드〉지의 풍자 이미지를 가장 자주 전재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흔히 알려진 양대 ‘황색 언론’뿐만 아니라, 몇몇 특정 미디어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65) Miller, pp.261-262.

66) Miller, p.11.

4. 전후(戰後) 미디어와 반(反)제국주의의 의미

미서전쟁은 ‘메인 호’ 사건 115일 만인 5월 1일에 개시되었고, 개전 후 109일 만인 7월 16일에 모두 끝났다. 다음 날 스페인이 산티아고에서 항복하자, 미국은 며칠 뒤 곧바로 푸에르토 리코를 완전히 점령했다. 미디어 이미지에 나타난 미국은 어엿한 브라스 밴드를 구성할 정도로 필리핀, 하와이, 쿠바, 포르토 리코, 라드론 제도 등 식민지 멤버들이 늘어난 모습이다.⁶⁷⁾

스페인이 어떤 강화조건을 내걸 것인지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7월 말부터였다.⁶⁸⁾ <헤럴드(LA)>지는 미국이 제시한 가혹한 강화조건을 스페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동 신문의 풍자이미지에서 스페인은 당연히 강화를 받아들여야 하며,⁶⁹⁾ 곤경에 처한 상처투성이로 유럽 열강의 문을 두드려 개입을 요청해 보았으나 냉담한 반응밖에 얻지 못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⁷⁰⁾ 제국의 명예가 크게 실추한 채 전쟁과 국내 혁명의 진퇴양난에 시달렸던 스페인은 이미 6월 초부터 ‘강화를 고려’했으며,⁷¹⁾ 결국 강화조약을 받아들였다.

8월 12일에 미 백악관에서 미 국무장관과 스페인정부를 대표하는 프랑스대사 캄봉(M. Jules Cambon)이 제6항에 달하는 정전협정 체결에 서명했다.⁷²⁾ 정전협정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제 쿠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1항), 푸에르코 리코와 서인도제도의 다른

67) The Herald(LA), 1898.8.10; Mariette Daily Leader, 1898.8.10.

68) The Herald(LA), 1898.7.28/31; The San Francisco Call, 1898.7.29/31.

69) The Herald(LA), 1898.8.1.

70) The Herald(LA), 1898.8.2/3.

71) The Houston Daily Post., 1898.5.10; The Salt Lake Herald, 1898.6.7.

72) Evening Star., 1898.8.13; The Wichita Daily Eagle., 1898.8.13; The Salt Lake Herald, 1898.8.13; The San Francisco Call, 1898.8.13; The Herald(LA), 1898.8.14.

스페인 섬들과 라드론 제도의 섬은 미국이 선택하여 양도받게 되었다(2항). 미국은 마닐라만을 점령하고 필리핀제도의 정치, 통제권, 처분권을 가졌다(3항).⁷³⁾ 풍자 이미지에 묘사된 어느 미국 독수리의 독백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스페인 독수리는 2월 이래 계속 털갈이를 한 끝에 모든 깃털(식민지)이 빠진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⁷⁴⁾

스페인과의 정전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다음 행보로 니카라구아 운하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미디어 역시 <헤럴드(LA)>지였다.⁷⁵⁾ 다른 미디어들도 획득한 식민지를 모두 합쳐도 텍사스주의 면적에도 못 미치니, 스페인 제국이 가진 걸 모두 내놓으라는 탐욕스런 팽창주의의 이미지를 앞다투어 게재했다.⁷⁶⁾

11월 말, 가혹한 조건의 강화조약이 파리에서 스페인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풍자 이미지가 있다.⁷⁷⁾ 스페인은 미국 강화위원회(US Peace Commission)의 강요에 따라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를 미국에게 넘기고, 라틴아메리카 쪽이 아닌 대서양 건너편 아프리카 대륙에 가까운 카나리 군도(Canary Islands)를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⁷⁸⁾ ‘빵 반쪽이라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Half a Loaf is Better Than No Bread)’는 캡션이 스페인의 곤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필리핀 양도를 둘러싼 배상금 문제가 가시화되자, 스페인은 미국에 필리핀 양도의 대가로 4천만 달러를 요구했다.⁷⁹⁾ 그러자, 미국

73) The San Francisco Call, 1898.8.13; The Salt Lake Herald, 1898.8.13.

74) Dakota Farmer's Leader, 1898.8.26.

75) The Herald(LA), 1898.8.15.

76) The Appeal, 1898.10.8; Kansas City Journal, 1898.10.10; Marietta Daily Leader., 1898.10.29.

77) The Salt Lake Herald, 1898.11.18; The Seattle Post-Intelligencier., 1898.11.22./29/30; The Houston Daily Post, 1898.11.30; The Herald(LA), 1898.12.9/10; Richmond Dispatch, 1898.12.18.

78) The Herald(LA), 1898.11.13.

언론들은 앞 다투어 2천만 달러가 적절하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스페인을 압박했다. 급기야는 ‘메인 호’를 폭침시킨 스페인의 악행에 비하면 2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후한 것(Good pay for a bad job)이라는 설명이 달린 이미지까지 등장했다.⁸⁰⁾ 미디어 이미지에 따르면, 스페인은 필리핀 양도의 대가로 2천만 달러를 받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쟁을 개시할 것인가를 고심한 듯하다.⁸¹⁾ 결국 미국은 필리핀 양도의 대가로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스페인을 태평양에서마저 축출했다.⁸²⁾

필리핀 양도가 결정되자, 필리핀문제(Philippines Question)는 향후 앵글 샘에게 매우 다루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디어 이미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⁸³⁾ 마닐라만 침공 석 달 뒤인 8월 중순에 미 지상군이 상륙하자, 필리핀인들은 처음에는 미국을 해방자로 인식했지만, 곧 에밀리오 아귀날도(Emilio Aguinaldo)를 중심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8월 말의 미디어 이미지에서는 미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필리핀의 모습이 앵글 샘에게 골칫거리 스핑크스로 비치기도 하고, 뚜껑이 열린 판도라의 상자로 묘사되기도 했다.⁸⁴⁾

11월에 이르자, 팽창의 결과로 필리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들을 예상하는 이미지와 필리핀을 과격하게 다루는 앵글 샘의 이미지

79) The Herald(LA), 1898.11.10.

80) Boston Herald, 1898.12.4; The Saint Paul Globe.(=New York Journal), 1898.12.5; Western News-Democrat., 1898.12.15.

81) The Evening Star., 1898.11.22; The Salt Lake Herald, 1898.11.23; The Herald(LA), 1898.11.26.

82) vening Star., 1898.11.22; The Salt Lake Herald, 1898.11.23; The Herald(LA), 1898.12.1; The Saint Paul Globe, 1898.12.5; The Houston Daily Post., 1898.12.9.

83) The Houston Daily Post., 1898.10.16.

84) The Richmond Dispatch, 1898.8.28; The Herald(LA), 1898.9.8; The Houston Daily Post., 1898.9.30.

등 필리핀 관련 이미지들이 증가했다.⁸⁵⁾ 이미지에 따르면, 1898년 말에 이르면서 미국은 대 필리핀 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각오하게 된 듯하다.⁸⁶⁾ 〈헤럴드(LA)〉지의 이미지에는 정의(Justice)의 여신이 ‘문명은 국내에서 시작된다(Civilization begins at home)’며 맥킨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시선은 국내 유색인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필리핀 군도의 지도에 고정되어 있다.⁸⁷⁾ 이 풍자 이미지는 〈뉴욕 월드〉지에서 전제한 것인데, 흔히 반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각종 자료와 연구서에서 자리매김되었지만, 이미지 한 장으로 〈헤럴드(LA)〉지의 호전주의는 외면한 채 반제국주의 언론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반제국주의 논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난 9월 초부터 미국 정가에서 등장했고, 12월에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영광’과 미국적 이상 사이의 갈등을 메우려는 논의들이 그것이다. 육군본부, 전시 정책, 소집 해제된 귀국 병사들의 문제, 전사자문제와 전쟁 책임론 등 ⁸⁸⁾ 전후 책임을 놓고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서전쟁의 총 전사자가 385명인데, 그보다 14배가 많은 5403명이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림에 나타나듯, ‘전쟁의 영광(war glory)’의 뒤로, 온갖 전염병과 질병, 비위생적인 병영, 오염된 식수, 허술한 장례식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그림 12>.⁸⁹⁾ 비위생적인 캠프, 질병, 의약품 및 간호사의 부족 문제, 외과의사 부족, 부상병들을 위한

85) The Herald(LA), 1898.11.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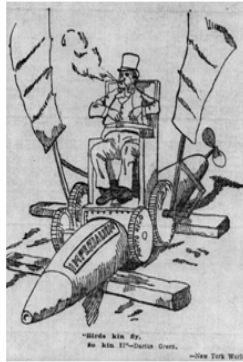
86) The Richmond Dispatch., 1898.12.18.

87) The Herald(LA), 1898.11.21(New York World에서 전재).

88) The Salt Lake Herald, 1898.9.1; Evening Star., 1898.9.3; The Herald(LA), 1898.9.3.

89) The Houston Daily Post., 1898.9.27; The Herald(LA), 1898.9.28; The Houston Daily Post., 1898.9.29.

간이침대 부족 문제 등에 대해 미 국방장관 또는 국방성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미지도 나왔다.⁹⁰⁾ 각종 전쟁 추문이 들끓었고, 결국 대통령에게 모든 수습의 책임이 있다는 압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도 등장했다.⁹¹⁾ 전쟁을 유도한 황색언론에 책임이 있다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미지도 등장했다.⁹²⁾



〈그림 12〉 The Herald(LA), 1898.9.28.

〈그림 13〉 The Saint Paul Globe, 1898.11.30.

〈그림 14〉 The Herald(LA), 1898.12.23.

미국의 이상주의 측면에서 반제국주의를 제기한 미디어는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글로브 The Saint Paul Globe〉지였다. ‘새들도 나는데, 나도 날 수 있어’라는 설명이 달린 이 이미지에는 ‘제국주의(imperialism)’라고 쓰여 있는 비행기 동체에, 쿠바, 푸에르토 리코, 필리핀 등의 바퀴와 엉성한 두 개의 돛대가 달려 있다 〈그림 13〉.⁹³⁾ 비행기 동체를 날기 어려운 조잡하게 풍자함으로써

90) The Herald(LA), 1898.9.8/18; The Richmond Dispatch.(New York Herald에서 전재), 1898.9.25.

91) The Herald(LA), 1898.9.26.

92) The Kansas City Journal, 1898.9.28.

93) The Saint Paul Globe., 1898.11.30.

뚜렷한 반제국주의 색채를 드러낸 이미지이다.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 디스패치 Richmond Dispatch>지의 위대한 맥킨리의 ‘명백한 사명(Manifest Destiny)은 멈출 수도 없고, 제지할 수도 없는 것이 되었다’는 영클 샘의 독백과 이미지도 전후 미국의 팽창주의의 역설을 잘 드러내준다.⁹⁴⁾ 19세기 중엽 이래 프런티어 팽창과 제국주의적인 해외 팽창을 이끌어온 미 영토 확장의 주된 이데올로기였던 ‘명백한 사명’이 이제 제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은 11월 중순에 지식인 기업가 등이 중심이 되어 보스턴에서 결성되었다.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이 결성된 근본적인 배경은, 쿠바를 병합하지 않으며, 쿠바의 독립을 규정한다는 4월 20일자 ‘텔러수정안(Teller Amend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⁹⁵⁾ 텔러수정안이란, ‘쿠바에 대한 주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의도나 경향을 거부하고...사태가 진정되면, 쿠바섬과 그 국민들에게 통치와 통제권을 넘긴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사실상 쿠바-스페인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이었다. 더욱이 쿠바 이외 다른 식민지들, 특히 필리핀은 이 수정안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텔러수정안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제국주의자들의 레토릭을 들어 보자.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 부의장이자 기업가인 에드워드 앳킨슨(Edward Atkinson)은 맥킨리 대통령에게 보낸 8월 25일자 서한에서, 필리핀 병합이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며 도덕적 분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⁹⁶⁾ 앳킨슨은 맥킨리에게 보낸 11월

94) The Richmond Dispatch., 1898.10.23.

95) The Herald(LA), 1898.12.22.

96) Edward Atkinson to William McKinley, 1898.8.25., Robert L. Beisner, *Twelve Against Empire—the Anti-Imperialists 1898–1900*(McGraw-Hill Book Company, 1968), p.95.

14일자 서한에서는, 제국주의로부터 가장 큰 위협이 ‘아시아인과의 성교로 감염되는’ 성적으로 옮겨지는 질병이라고 가정했다. 옛킨슨은 수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하며 수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채 귀국하므로, 모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앞으로의 세대에 치욕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⁹⁷⁾

옛킨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반제국주의자들 역시 필리핀 병합에 반대했지만, 그 위협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달랐다. 법률가이면서, 미국 술집 연합회(American Bar Association) 회장을 지냈던(1896-’97),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창단 멤버인 무어필드 스토레이(Moorfield Storey)는 필리피노를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맥킨리 대통령을 ‘노예사냥꾼’이라고 비난했다.⁹⁸⁾ 6월 15일 보스턴에서의 반제국주의자들의 첫 모임에서 그는, ‘쿠바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 잉글랜드지방의 저명한 정치가 조지 부트웰(George S. Boutwell)은 초대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의장으로서 1905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의장을 지냈던 중요한 인물이다. 부트웰은 거주민의 동의 없이 외국 영토를 지배하는 것은 미 독립선언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지만, 스토레이와는 입장이 달랐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후일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부의장(1901~1910)을 맡게 될 저명한 문필가 마크 트웨인(사무엘 클레멘스)은 1898년 당시에는 미국의 필리핀 획득을 지지했던 친제국주의자였다. 그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와 직결되는 ‘문명의 축복’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았다.⁹⁹⁾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식민지 병합

97) Beisner, p.97.

98) Beisner, p.113.

99) Ivonne Marie Garcia, pp.320-21,325.

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은 가장 단순한 문제에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반제국주의자들의 능력과 레토릭이 비효율적이라고 의심했다. 어떤 유권자들은 하와이, 필리핀, 쿠바의 열대지방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연루된다는 사고 자체를 혐오했다. 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반제국주의자들은 너무 교육받은, 부유한 계층이었다. 결국 반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반대 진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나온 여러 문제에서 분열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디어에서 형성된 반제국주의 여론과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결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 1898년의 미디어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분석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제국주의자들의 레토릭은 반제국주의자 연맹 결성과정이나 결성 이후에도 미디어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이 탄생한 이후 반제국주의자들의 공적인 레토릭과 논의가 미디어 이미지나 헤드라인에 반영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제국주의자들은 주로 강연, 팜플렛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1899년 4월에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강령에 처음 반영될, 쿠바 식민화에 대한 인도주의적 도덕적 반대 논의는 1898년 말의 미디어에서는 아직 그 여론이 채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 대중들은 소수의 반제국주의자들의 공공 레토릭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8년 11월 말에 미디어에 등장한 반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몇 가지 뚜렷한 경향이 보인다. 반제국주의 논의가 주로 팽창에 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¹⁰⁰⁾ 즉 반제국주의 여론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무제한 팽창에 드는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형성되었다.

100) The Herald(LA), 1898.12.22.

전쟁기에 가장 호전적인 미디어 가운데 하나였던 LA 〈헤럴드〉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반제국주의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앞장섰다. 팽창(expansion)에 드는 경비 때문에 몸이 과도하게 육중해진 맥킨 리대통령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다음에 내디딜 발걸음은 곧장 ‘정치적 망각(political oblivion)’의 낭떠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이미지가 그것이다(그림 14).¹⁰¹⁾ 같은 날, 〈휴스턴 데일리 포스트〉지의 ‘팽창정책’의 문이 열린 깜짝 파티에 자마이카, 바르바도스 등 수많은 중남미국가들이 줄을 서서 ‘우리도 병합하라’고 미국에 줄줄이 요청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이미지도 팽창 비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다.¹⁰²⁾ 다른 미디어의 이미지에서도 잉클 샘의 모습은 팽창에 드는 연간 예산, 무역 수지 등이 너무 과도해서 병합 이전의 훌쭉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고도 비만이 극에 달한 모습으로 그려졌다.¹⁰³⁾

그러므로 전후(戰後) 1898년의 반제국주의 논의는, 1899년 4월의 반제국주의자 강령에서 드러나게 될, 전쟁의 영광과 그에 따른 미국적 이상과의 갈등의 측면이라는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적 논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1898년 말의 반제국주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팽창주의 식민정책과 그에 따른 팽창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뉴욕 헤럴드〉, 〈헤럴드(LA)〉, 〈워싱턴 포스트〉, 〈마리에타 데일리 리더〉지 등이 이 같은 반제국주의 논의에 앞장섰다. 다시 말해 1898년 미디어에 나타난 반제국주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은, 미국의 상식과 양심, 도덕적 이상과의 갈등, 즉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인도주의적, 이데올로기적 논의보다는, 주로 해외 팽창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의

101) The Herald(LA), 1898.12.23.

102) The Houston Daily Post., 1898.12.23.

103) New York Herald, 1898.8.7; Marietta Daily Leader., 1898.12.23; Washington Post, 1898.12.23.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내부에서는 분명 필리핀 지배의 도덕적인 측면이나, 자유의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레토릭이나 모토는 분명하지 않았으며, 미디어에서는 거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1898년 말의 미디어에서 인종주의와 미국적 이상과의 갈등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는 아직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미국의 미디어의 호전적 애국주의가 대 스페인전쟁의 개입을 선동하고 해외 팽창을 주도한 과정과, 전후의 반제국주의 논의의 의미를 미디어 이미지의 경향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기존의 학설처럼, 미서전쟁기의 미디어의 애국주의적인 대형 헤드라인과 풍자 이미지는 적극적으로 전쟁 개입을 주도했다. 해외 영토 획득에 대한 일부 지식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쿠바-스페인전쟁에 대한 개입 선동은 당시 거스를 수 없는 통일된 애국주의 열기였다.

1898년 미서전쟁기의 미디어 이미지의 팽창주의, 호전적 애국주의, 반제국주의 반전 여론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의 경향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보니 밀러는 발행부수가 각각 100만부를 훌쩍 넘었던 <뉴욕 저널>과 <뉴욕 월드>의 양대 신문이 경쟁적으로 풍자 이미지를 게재하며, 정부가 전쟁에 개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일반론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밀러는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의 신문들을 분석하여 친제국주의와 반 식민주의적 성향의 언론을 분류하였다. 밀러의 연구는 황색언론인 <뉴욕 월드>

지가 전쟁 개입을 주장하면서도 반제국주의 언론이었다고 분류했지만, 정작 반제국주의적인 풍자 이미지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캘리포니아의 두 언론(The Herald, San Francisco Call)은 양대 황색언론 다음으로 가장 선정적이고 호전적이었다. 이 캘리포니아 언론들은 전쟁기 내내 1면 전체를 여러 장의 풍자 이미지와 대형 헤드라인으로 애국주의를 선동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두 신문은 스페인과 관련한 이미지를 가장 많이 게재함으로써 전쟁이 국가 정책의 도구이며, 위대한 국가인 미국의 전쟁은 영광스런 것이 될 것이라는 징고이즘의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헤럴드(LA)>지는 개전 이전 다소 중립적인 이미지를 게재하기도 하고, 종전 이후에는 팽창 비용의 측면에서 반제국주의를 표방한 다른 미디어의 이미지를 전재하기도 하였지만, <뉴욕 월드>와 <뉴욕 헤럴드>지의 호전적인 팽창 일변도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전재한 신문이기도 했다.

미국 미디어들은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새로운 영토를 추가하라는 선동적인 여론을 주도했다. 필리핀을 차지하고 나자 언론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타 신문의 이미지를 중복 전재하며 팽창주의적 선동을 반복 재생산했다. 필리핀에 이어 하와이 병합을 확실히하라는 압력이 나왔고, 이후에는 니카라구아 운하를 확보하라는 압력으로 카리브해 진출을 선동했다. 특히 필리핀 병합문제가 야기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디어는 정부의 정책에 앞서 늘 애국주의적이고도 팽창주의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반제국주의 논의와 그를 반영한 미디어 이미지는 전후(戰後)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영광’ 뒤에 도덕, 상식 등 ‘미국적 이상’과의 갈등이 야기된 측면도 있었다. 이는 전쟁의 책임문제, 전사자들의 처리, 병영시설,

각종 전쟁의 추문 등이 점차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쟁을 유도했던 황색 언론에 대한 반성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 팽창과 개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반제국주의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1898년 11월 말에 미디어에 등장한 반제국주의는 주로 팽창에 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요컨대 1898년의 미서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지 않은 모순된 전쟁이었다. 미서전쟁은 스페인의 지배에서 쿠바를 자유롭게 한다는 미디어가 조장한 애국주의와 도덕, 인간애와 같은 이상주의적 명분으로 미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전개되었다. 그러나 개전 이후에는 마치 군사전략적인 이해관계와 제국주의적인 해외 팽창이 전쟁의 목적인 듯 미디어의 압력이 정부의 팽창정책을 견인했다. 전후 미디어에서는 해외식민지 획득과 제국의 팽창, 그리고 팽창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는 반제국주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논의는 1898년 말의 미디어에서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투고일: 2015.10.2, 심사수정일: 2016.2.1,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미국-스페인전쟁(미서전쟁), 황색언론, 팽창주의, 제국주의, 애국주의, 징고주의, 미국 반제국주의자 연맹, 정치풍자화, '메인 호'를 기억하라

<ABSTRACT>

The American-Spanish War and Political Cartoons in Press Media: Expansionism and Anti-Imperialism

Seok, Hua-jeong

The American-Spanish War of 1898, was initiated for the United States to step to rescue Cuba from the oppression from Spain, ended just months later with the U.S. acquisition of Spain's remaining empire, including Cuba, Puerto Rico, Guam and the Philippines. Patriotic medi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reaking out the war, identifying the key territories to be acquired prior to a deployment of military operations. Even though there were various shades of high-circulation "yellow" journalism,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unexplored' press media by the including political cartoons, headlines, caption texts from newspapers in both rural and urban settings across the U.S. It elaborates to show how the nation's patriotic media campaigns mainly by cartoonists and editorialists capture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Cuban crisis, and to portray the U.S actions for the duration of the conflict, from liberation to conquest, and further to press the U.S acquisition new territories abroad. After the war, growing resistance to American expansionism was found expression in the media, but it was driven the consensus in terms of expansion costs, not by a moral compass as will be identified at the platform of Anti-Imperialist League of 1899.

Key Words : The American-Spanish War of 1898, Yellow Journalism, expansionism, Imperialism, Patriotism, Jingoism, 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 political cartoons, Remember the *Maine*.

